

기독교 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과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박안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관계이론 중 Fairbairn의 이론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대상관계이론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을 성경의 충분성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고찰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이를 위해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을 성경의 인간관을 충실히 기술한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동기, 결정, 발달, 정신 병리 및 상담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Fairbairn은 인간을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고, 어머니를 결정적 대상으로, 성숙은 대상에 대한 의존으로 보아 상담의 목적을 자아의 통합에 두고 상담자를 통한 좋은 경험을 치료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죄된 자기가 결정 주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보아 죄로 물든 자기 욕구의 부인을 상담의 목적으로 하며 상담자의 믿음과 성육신적 희생 자세를 요구한다. 기독교 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을 문제의 틀로 활용할 때에는 자아 통합의 동기를 고려해야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으며, 치료 관계를 중요시하되 내담자가 느끼기에 좋은 관계를 넘어, 사랑과 진리에 기반한 성육신적 자세로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상담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주제어: 대상관계이론, Fairbairn, 개혁주의 인간론, 기독교 상담, 성경적 상담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4일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이 논문은 총신대학교 박안나의 석사학위논문(2016년 2월, 지도교수: 김준)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유아 시기 엄마에 대한 경험이 유아의 내면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한 개인의 자아 형성과 성격 발달을 지배한다고 보는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을 관계 속에 놓인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의 유사함 때문에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이 이론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우리나라에 이 이론이 소개된 후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500여 편의 대상관계 관련 연구 중에서 1900년대에는 약 50%(이정혜, 2004)가 기독교 상담 관련 연구일 정도로 기독교 상담학계에서 대상관계이론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하나님 이미지나 기독교인의 관계 중독, 자기애 성향 등의 구체적인 사례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신학적 관심(박민수, 2003)과 전통적으로 관계성을 중시하고 자아의 위치와 의미를 관계 속에서 찾는 우리 문화(유영권, 2008)가 대상관계이론을 만나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미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대상관계이론을 다시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은 대상관계이론의 관계 이론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 중요하다.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학 이론의 인본주의적 속성은 경계하며 성경의 충분성에 기초하여 상담에서 성경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하기에(김준, 2013) 성경을 최우선으로 한 관점에서 과연 이 이론을 기독교 상담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대상관계이론의 관계 이론을 고찰해 보고, 기독교 상담 영역의 대상관계이론 적용에 대하여 논의 한 후, 이 논의를 토대로 성경적 상담 현장에서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관계이론과 성경적 인간론을 각각 Fairbairn의 이

론과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을 통해 이해하고 비교해 볼 것이다. 대상관계 초기 이론가인 William Ronald Doge Fairbairn은 먼저 대상관계를 주창한 Klein과는 달리 Freud의 본능적 충동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의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관계를 욕구하는 인간관에 초점을 맞추어 순수 대상관계모형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lair, 2003). 그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관계 추구로 보고 전적으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정신 구조 및 발달 모델을 상정하고 정신 병리와 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관계적 맥락으로 일관된 논지를 펼쳤다. 그 뿐 아니라 치료의 측면에서도 치료자와 환자의 인격적인 관계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임을 주장하여 대상관계이론이 치료적 매체로서 활용되는데 공헌하였다. 그의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Mahler, Bowlby 등의 심리학자와 자기심리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김진영, 2003)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계를 주도한 Freud의 이론에 기댄 Klein에 가려 대상관계 연구가 활발한 국내에서도 Fairbairn의 이론만을 단독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논문에서 그의 이론을 다루는 것은 대상관계 이론의 인간관과 근본 원리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적합할 뿐 아니라 대상관계 관련 연구로서도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성경의 인간론과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자 Anthony A. Hoekema의 저서 ‘개혁주의 인간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Hoekema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관계 속에 놓여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성경을 따라 인간론을 기술하여 성경의 충분성이 전제하는 인간관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영화의 단계에 인간이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를 적용하고 인간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시해주기에 본 논문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본다(김웅기, 2013). 두 관점을 비교 한 후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대상관계이론의

활용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뿐 아니라 적용 가능성을 논하고 현장에서의 그 활용에 대한 제언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II. 펴는 글

1.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의 이해

대상관계이론은 Klein과 Fairbairn이 초기 이론을 구축한 후 Winnicott, Kernberg 등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그 이론이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이론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데(오오현, 2010), Fairbairn은 이론가들 사이에 일치를 보이는 대상관계이론의 세 가지 핵심 기본 원리를 구축하였다. 인간은 대상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본성이 있으며, 엄마로 대표 되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은 향후 모든 관계 형성의 틀이 되며,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는 Freud의 오이디푸스기보다 이전이라는 것 등이다. Fairbairn은 욕구를 추구하는 기존의 인간관에서 현실의 대상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인간관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관계적 맥락에서 내적 자아를 정교하게 설명했으며(Cashdan, 2005) 이는 대상관계 이해를 위한 조직적인 틀이 되었다(김진영, 2003).

1) 인간은 관계를 추구한다.

Fairbairn은 Freud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자체에 Freud 이론의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본질적인 면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Fairbairn은 Freud가 인간 심리의 주요 개념의 위치를 잘못 설정하였다고 지적하며 인간이 행동하는 이유를 ‘쾌락’에서 ‘대상’으로 바꾸었다. 그 동안 대상

은 쾌락을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Fairbairn은 그 위치를 뒤집은 것인데, 예를 들면 Freud가 말한 성감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관계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하나의 경로가 된다. 유아가 빨고 무는 것에 집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고 보았다(Fairbairn, 1995). Fairbairn은 대상에 대한 정의도 관계 맥락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신체적 쾌감을 만족시키면 비인격적인 것도 대상으로 보았던 Freud의 정의를 폐기하고 대상을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충동에 먼저 초점을 맞추었던 정신 병리 연구도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대상관계 초기 이론가로서 Fairbairn의 공로는 관계라는 일차적 가치의 위상을 올리며 심리학적 가치와 개념들의 자리를 바로 잡은 데 있다. 이는 마치 ‘하늘이 돈다’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던 시대에 Galileo가 ‘땅이 돈다’고 바로잡아 기존 용어와 개념들을 제 위치에 놓은 것과 같다. ‘하늘이 돈다’는 잘못된 명제 아래서는 시간과 계절 현상을 억지 이론으로 설명해야 했지만, ‘땅이 돈다’고 바로잡았을 때에는 맞아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Fairbairn도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이다. 이처럼 Fairbairn이 대담하게 당시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의 인간관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 존재의 핵심이 관계라는 것을 확신했음을 보여준다. 쾌락과 관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느냐 능동적인 존재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이다. Fairbairn은 인간을 본능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Freud의 인간관을 배격했다. Fairbairn에게 인간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며, 그 핵심은 관계성이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일차적으로 관계에 굶주려 있다고 말했다(이재훈, 1998:21).

2) 결정적 대상 - 엄마

생애 초기 단계에서 아이의 자연스러운 대상은 엄마이다(Fairbairn, 1995). 유아는 생존을 위해 엄마의 젖을 먹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엄마일지라도 아이의 모든 것을 만족 시켜줄 수는 없어 유아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좌절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유아에게 양가감정을 유발하는 경험인데, 엄마가 유아를 만족시키는 동안 엄마는 좋은 대상인 반면, 만족시키지 못하는 동안 엄마는 나쁜 대상이 된다(Fairbairn, 1995).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의 경험은 유아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불만족스러운 대상에 대한 만족의 갈망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유아는 이 심리적 혼란과 고통을 처리하고자 내적 세계로 들어가는 내재화를 통해 내적 대상을 형성한다(Fairbairn, 1995). 그리고 내적 세계에서 불만족스러운 대상에 대한 강제적인 억압을 시작하는데 이는 의식 안에 있는 이상적인 엄마 이미지를 손상 시키지 않기 위해 불만족스러운 엄마 이미지를 분리해 무의식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이다(Scharff & Scharff, 2005). Freud는 용납될 수 없는 죄책감이나 불쾌한 기억을 억압한다고 했지만 Fairbairn은 억압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내재화된 나쁜 대상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 강제적인 억압으로 내적 세계는 분열되는데, Fairbairn은 분열성 성격의 임상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자아 분열이 있다고 밝히며(Fairbairn, 1995), 엄마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로부터 형성된 안정적인 자아가 그렇지 않은 자아들을 거절하여 공격성이 발생하는 것을 기본적인 심리내적 상황이라고 불렀다. 이후의 모든 대상과의 관계는 이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Fairbairn은 한 사람의 정신 구조와 성격을 좌우하는 것은 생애 초기 엄마라는 대상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스러운 측면으로 보았다.

유아의 심리 구조와 발달의 결정을 엄마로 보는 것은 Freud의 전통 정

신 분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정신 분석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어린 소년에게 거세 불안을, 그리고 소녀에게 남근 선망을 창조함으로써 아버지는 아이가 오이디푸스 시기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Fairbairn은 임상을 통해 Freud 이론이 실체가 없다고 보고 유아가 경험하는 엄마와의 관계가 유아의 내면 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3) 성숙의 척도 - 대상에 대한 의존

지금까지 설명한 심리내적 구조는 Fairbairn이 제시한 ‘내적 대상’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핵심이다(오오현, 2010). Fairbairn보다 먼저 엄마와의 관계를 강조한 Klein은 유아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괴성의 산물이 나쁜 대상이며 이는 엄마에게서 투사된 것이라 하여(Cashdan, 1998) 환상을 강조하는 Freud의 관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Fairbairn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엄마와의 실제 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유아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내면으로 가져오기 위해 엄마의 나쁜 측면을 분리하여 내면화한다. 분리와 억압과 같은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엄마에 대한 의존성 때문이며, 이 의존성은 유아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Fairbairn은 내면의 성숙 과정에 대해 Freud의 심리성적 단계 관점을 거부하고 이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

대상관계의 발달은 유아적 의존 단계, 과도기적 단계, 성숙한 의존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Fairbairn, 1995). 유아적 의존 단계는 대상과 자신을 융합시켜 일차적인 동일시(primary identification) 된 최초의 대상관계이며, 성숙한 의존 단계에서는 대상과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서로 의존하는 건강한 의존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Fairbairn에게

성숙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두 단계의 중간인 과도기적 단계는 대상에 대한 유아적 의존을 포기하고 성숙한 의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달적 본능과 대상에 대한 동일시로 유아적 의존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퇴행적 충동의 싸움이 일어나며 왔다 갔다 하는 단계로 불안이 존재한다(Fairbairn, 1995). 현실적으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Fairbairn은 과도기적 단계를 건강하게 지나 성숙한 의존의 단계로 가기 위해 유아의 가장 큰 욕구, 즉 자신이 부모에게서 진실로 사랑 받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사랑이 부모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아는 실제 대상들에게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차츰 유아적 의존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유아의 대상관계는 심각한 분리 불안으로 채워져 유아적 의존을 포기할 수 없고 성숙한 의존으로 나아갈 수 없다(Fairbairn, 1995).

4) 정신병리와 상담

(1) 상담의 목적 - 자아통합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Fairbairn은 정신병리의 핵심을 관계적 맥락에서 자아의 억압과 분열로 보았다. Fairbairn은 임상을 통해 환자들이 유아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때 나쁜 대상들이 자아의 억압을 위협하면 자아가 편집적, 강박적, 히스테리적 그리고 공포증적인 네 가지 기술에 의지하며 대처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다(Fairbairn, 1995). 자아가 분리되는 현상 자체가 의식에 훼손감을 느끼게 해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분열 성향을 가지게 된다(Fairbairn, 1995). Fairbairn이 기본 병리를 분

열로 본 것은 우울증을 기본 병리로 본 Klein과 또 하나의 견해 차이로, Fairbairn은 우울증으로 진단된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분열증 환자였다고 주장했고, 우울증은 자아의 분열된 후 나타나는 죄책감의 경향이라고 보았다(이재훈, 1999). Fairbairn(1995:63)은 “자아 분열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병리가 되기에 일차적으로 유아 의존기에 심한 좌절을 겪은 경우 정신분열증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자아가 방어적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대상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 기술들은 병적인 행동이 되어 공포증, 강박증, 편집증, 히스테리 등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하였다. 이 병적인 수준, 즉 신경증적이 되는지, 정신병적이 되는지, 정상적이 되는지는 현실 관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중심 자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중심 자아가 나쁜 대상에 얼마나 동일시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Fairbairn, 1995). Fairbairn은 자아통합이 성공적으로 될수록 분열은 정상 범위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기에 Fairbairn에게 치료 목표는 자아를 통합하는 것이며 그 원동력을 실제 관계에 두었다(Fairbairn, 1995).

(2) 상담의 방법 - 상담자와의 좋은 관계 경험

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아의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Fairbairn의 이론에서 자아 분열이나 통합은 모두 자아가 수행하는 기능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중심 자아의 크기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분열된 자아 부분을 작게 하고 중심적 자아를 확대하는 것이 통합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Fairbairn은 중심적 자아를 상담 목표와 관련하여 다음 세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중심적 자아는 이상적 대상, 즉 만족을 주었던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나온 자아이다. 다양한 상태들 가운데 “중심 자아”만이 현실 세계에서 현실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아의 회복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반증한다(Cashdan, 1988). 둘째, Fairbairn은 중심적 자아가 Freud가 말하는 초자아가 있는 수준보다 더 깊은 곳에 존

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심적 자아에게는 도덕적 의미는 없고 다만 중심적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나쁘면 무조건 적으로 나쁜 대상, 좋으면 좋은 대상으로 간주된다(Fairbairn, 1995). 따라서 중심적 자아를 통한 자아의 재통합은 개인이 느끼기에 좋은 경험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Fairbairn은 분열된 자아의 부분이 클수록 중심적 자아는 축소된다고 하였는데, 중심적 자아는 좋은 경험과 대상이 내면화 된 것이며, 분열된 자아를 방어하는 역할과 현실과 관계 맺는 부분을 담당하므로 중심적 자아를 확대시키는 것이 치료나 상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airbairn은 환자가 치료자와 실제로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환경 안에서 치료자를 자신의 내적 대상세계로 끌어들게 되어 억압된 나쁜 대상이 재출현할 때 자신의 과거 관계유형을 인식하며(Fairbairn, 1995), 환자가 충분히 좋다고 느끼는 관계 경험이 환자의 저항과 방어를 깨뜨려 중심적 자아의 확대를 가능하게 본다고 보았다. 결국, 변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나 통찰보다 치료자와의 좋은 관계 경험이라는 것이다. 관계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제공될 때에만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나쁜 대상들이 의식될 수 있고, 그 결과 자아의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Fairbairn은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관계에서 환자가 하는 좋은 경험으로 보았다.

2. 성경의 인간관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대상관계이론을 조명하는 성경의 인간관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성경의 충분성이 전제하는 인간관을 충실히 설명한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 - 원제는 Created in God’s Image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 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추구한다.

Hoekema는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성경적 인간론의 심장부라고 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놓으신 삼중적 관계,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론에 접근한다(Hoekema, 1986). 이 세 가지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인간은 이 세 관계 중 어느 하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으며 바른 기능을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인데, 대부분의 신학자와 같이 Hoekema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더하여 Hoekema는 다른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Calvin과 다른 노선을 취하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 구성 요소에 육체를 포함한 것은(김웅기, 2013), 사람 및 다른 피조물들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김석호, 2012). 즉,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 삼중 관계에서 인간이 향해야 할 방향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이 오직 인간만을 이 관계 안에 두신 것은 피조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고도 신비로운 의지이다(Hoekema, 1986).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도 그 분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을 향하여 서 있음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이 방향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 죄의 결과인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력은 삼중 관계에서 인간이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에서 자기로 완전히 바꾸었다(Hoekema, 1986). 이는 Augustin이 하나님을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Hoekema, 1986).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싹이 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다른 두 관계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꿀 뿐

아니라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한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결정 주체 - 자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죄의 결과는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력이며,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성경은 죄의 결과로 온 부패가 마음에 그 근원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마음은 사람의 내적인 중심, 생각과 감정, 의지가 집중된 기관이며 삶의 원천 그 자체이다. 인간 행동 뒤에 숨겨진 죄의 실체는 사실 마음에 있고, 마음은 누가 차지하는가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다(Lambert, 2012). Powlison은 마음의 전쟁을 '마음이 경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의 싸움으로 보고 그 대상을 하나님과 우상으로 나누었다(Lambert, 2012). 우상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는 신약 성경 모두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돈에 대한 사랑부터 성과 권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이차적인 문제이다. 성경은 우상 숭배 배후에 있는 본질, 즉 마음의 동기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제공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빠져 스스로를 숭배한 '자기 숭배'임을 보여준다(Lambert, 2012). 신약성경은 역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죄인인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은 일관되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우선 추구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Lambert, 2012). 이처럼 죄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Hoekema가 표현한 '피조된 인격체'라는 말에는 인간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지닌 존재로 선택의 자유가 있어 개인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삶

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 즉, 인격체라는 의미가 있다(Hoekema, 1986).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는데, 인격체로서 인간은 이 회복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Hoekema, 1986). 즉,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주관하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본다. 마음의 결정 주체로 자기를 삼은 것이다.

Fairbairn은 사람의 심리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대인관계, 그 중에서도 엄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죄 된 존재로서 마음의 결정 주체가 인간,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다. 마음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은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기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3) 성숙의 척도 - 하나님에 대한 의존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필요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논지에서 Hoekema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회복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Hoekema, 1986), 창조되었던 본래적 형상(The Original Image)에서 죄로 인해 변질된 형상(The Perverted Image)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새롭게 된 형상(The Renewd Image)으로, 마지막으로 성화를 통해 인간이 이웃과 모든 피조 세계에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온전케 된 형상(The Perfected Image)의 단계이다(김웅기, 2013).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적 무능력 상태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 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꿀 수 없다. 예수님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무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둘째, Hoekema(1986:152)는 이 회복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단언했다. 형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이며,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Hoekema, 1986). 따라서 인간의 성숙 과정은 이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 사역을 진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 이 사역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길임을 말하는 것이다(Hoekema, 1986).

성경은 발달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지만 그에 견줄 수 있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을 뜻한다. 성화의 단계는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이 결국 성령님에게 얼마나 의존하는가, 얼마만큼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 그 분이 일하시도록 하는가에 달려있다.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과 성경 모두 성숙에 대한 기준과 척도를 의존성을 사용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의존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은 대상, 즉 인간에 의존을 말하는 것에 반해 성경은 성령님에 대한 의존을 이야기한다.

4) 정신 병리와 상담

(1) 상담의 목적 - 죄로 물든 자기 욕구의 부인

성경이 현대의 모든 정신 병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나 성경의 인간관을 통해 이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의 단일체라는 것으로

Hoekema(1986:348)도 “인간이 여러 ‘부분들’의 복합체가 아니기에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을 영육통일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신 병리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Jay Adams는 영혼과 육체의 고통의 원인을 죄로 보며 영혼의 문제는 종종 정신병으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로 보았다(Lambert, 2012). 따라서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이웃과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이에 대하여 Hoekema(1986:36)는 타락으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Schilder나 Berkouwer 등의 의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의 소유의 개념을 넘어 사람이 곧 하나님 형상’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인간의 타락으로 손상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고 했다(Hoekema, 1986).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Calvin은 부패한 인간의 죄 된 본성으로부터 등을 돌려 정욕과 지속적인 싸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자기부인이라고 했으며(이수미 외, 2015) 이는 곧 성화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성화의 본질은 자기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근본적인 전향,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에 근거한 욕구를 부인을 의미하는 자기부인에 있으며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자기부인의 과정이다. Calvin이 자기부인은 일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성화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본 것(이수미 외, 2015) 같이 기독교 상담의 본질적인 방향은 여기에 있다.

(2) 상담의 방법 - 성육신적 공감과 희생

Calvin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이수미 외, 2015).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기부인을 말씀하셨고 먼저 스스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상담자 자신이 자기 부인의 길 위에 있어야 하며 그럴 때 상담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임하게 된다.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자도 죄로 인해 무능력해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는 자기부인이 불가능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상담 현장에서의 상담사의 자세는 빌립보서 2장 4-8절 말씀에서 완전한 자기부인의 예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이 신이면서도 자신이 구원해야 할 인간의 위치로 내려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인간의 시험과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한 성육신은(김승희, 황선미, 김용태, 2015)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통찰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준다. 권수영(2005:117)은 “한 인간을 이해하는 작업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와 인간의 고통을 안으로부터 함께 느끼는 성육신적인 과정”이라고 하며,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감정을 깊이 공감해 그 감정을 상담자 자신이 스스로 정의 내려 내담자에게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며 공감할 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고통 가장 밑자락까지 내려오신 성육신을 다시 체험하는 성숙한 공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Paul David Tripp은 ‘사랑을 보여주는 상담’을 제안하고 내담자에게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것을 말했다. 진리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일이기에 자기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ripp은 사랑과 함께 하는 진리로써 ‘희생적인 상담’을 이야기하며, 희생적인 마음으로 내담자를 섬기는 것이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사랑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Tripp, 2002).

이와 같은 성육신적 공감과 희생은 기독교 상담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좋은 관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과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 비교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
인간관		인간은 관계를 추구한다	인간은 자기욕구를 추구한다
결정적 대상/주체		결정적 대상 - 엄마	결정 주체 - 자기
성숙의 척도		대상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의존
정신병리와 상담	상담목적	자아통합	자기부인 (죄로 물든 자기 욕구의 부인)
	상담방법	상담자와의 좋은 관계 경험	성육신적 공감과 희생

3. 기독교 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의 활용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함에 있어 성경과 대상관계이론이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독교 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의 활발한 연구는 개인의 다양한 대상관계 수준을 측정하려는 구미의 연구 방향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며, 문제 분석의 틀 및 치료의 방법으로서 대상관계이론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이해리, 2004).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문제 분석의 틀과 치료의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대상관계이론의 활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문제 분석의 틀

기독교 상담 연구 분야와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대상관계이론 중 하나는 하나님 이미지를 다루는 Rizzuto의 이론이다. Rizzuto의 이론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의 표상 과정에서 인간의 기억과 상상력을 강

조했는데(윤철호, 2013), 내재화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는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주 양육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대상관계이론을 문제 분석의 틀을 사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아는 하나님에 대한 외부 현실과 내부 현실의 차이를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이미지로 변화시키어 가는 통합 활동을 한다. 문제는 자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이다. Rizzuto는 이 이유를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심리적 균형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이해리, 2004:1302), 여기서 심리적 균형은 곧 자아통합을 의미한다(반신환, 1997). 그것은 하나님의 표상이 개인의 성장에 따른 정서적 성장에 맞춰지지 않으면 스스로 불편하며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반신환, 1997). 타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대상관계이론들은 이렇게 자아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자아가 스스로 만족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자아통합이 주는 안전감과 자존감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Fairbairn(1995)은 임상을 통하여 자아가 나쁜 대상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나쁜 내적 대상들에게 애착되어 충성심을 갖기도 하고, 오히려 나쁜 대상들의 나쁨을 죄책감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짊어져 대상의 나쁨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관찰했다. 왜 나쁜 대상의 나쁨을 오히려 짊어져 대상을 보호하려고 할까? 인간은 관계를 욕구하는 존재이고 나쁜 대상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이해리, 2004). 관계적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은 대상을 고통스럽게 끌어안은 과정을 통해 자아를 통합해 가려고 한다. 이 모습은 마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그 대상을 원하는, 우상숭배에 빠진 노예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자아 자신이 원하는 안전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 고통스럽게 대상을 끌어안은 모습이 바로 인간이 우상에게 하는 모습이다. Edward T. Welch는 “우상에 의지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자기를 더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Lambert, 2012:12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보는 분석의 틀로 대상관계이론을 단순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담의 방향을 내담자의 자기욕구의 충족에 둘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모든 자아통합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김규보는 대상관계 이론가인 Winnicott의 이론을 통해 성경적 관점의 참가자가 자기부인의 실천을 지배할 때 자기 실현을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김규보, 2014). 통합이라는 내적 작용이 자기의 죄 된 본성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Fairbairn이 말한 심리내적상황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동기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심리내적상황을 동기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대상관계 이론으로 문제를 분석한다면 기독교 상담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자아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에서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대상은 자기만족의 욕구를 채우려는 수단에 불과하며(반신환, 1997), 대상관계이론은 영적차원을 간과한 채 대상의 이미지를 인간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창조한, 환상적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정연, 2016). 이는 삼중 관계 안에 놓인 인간에게 첫째 되고도 가장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이라는 인간으로 바꿔 놓는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내적상황에 대하여 마음의 동기를 고려해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중히 대상관계이론의 활용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에 대한 전제 없이 대상관계이론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단순히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심정연, 2016).

2) 치료의 방법

내담자의 치료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과 맥락이 같아 성경과 대상관계이론이 가진 공통된 해결책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변화를 위한 진정한 치료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관계에서 말하는 내담자 입장에서의 좋은 관계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내담자의 입장이 되는 성육신과 체휼, 희생으로 상담에 임해야 하며, 그것은 상담에 임하는, 또한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에서 나타난다. 내담자와 상담을 위한 간구를 하지 않는 것이나 상담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물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담자나 문제에 대해 관련 심리학 이론-특히 성경의 충분성 관점에서 검증하지 않은 심리학 이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아통합의 동기에 대한 확인 없이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는 것 역시 성육신적 공감을 이룰 수 없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Fairbairn이 그 당시 심리학을 지배했던 Freud의 인간관을 뒤엎고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은 그 자신이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의 정통 칼빈주의의 엄격한 전통에서 자랐고, 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던 배경이 있다(이재훈, 2004).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과 능동성을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여긴 그에게 인간을 욕망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로 본 Freud의 인간관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Freud의 이론을 철저하게 배격한 흔적이 그의 이론과 문헌 곳곳에서 보인다. 더 나아가 그가 치료 방법으로 치료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좋은 관계'를 제안한 것은 단순히 이론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여겨진다. Fairbairn 자신이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했던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상담가들이 내담자의 회복과 문제해결에 진심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담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닌 내담자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죄로 인한 욕구를 부인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안전한 관계가 필요한데, 내담자가 느끼기에 단순히 좋은, 심리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안전한 관계가 필요하다(김규보, 2014). 영적으로 안전한 관계는 사랑에 기반한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이유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이 인간이 되어 대신 죄 값을 치루는 성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상담자 역시 사랑을 이유로 상담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성육신의 방법을 따르는 상담은 결국 상담자에게 단순히 내담자에게 좋은 관계 경험을 주려는 의지나 기술보다도 믿음을 요구한다(Tripp, 2007).

III. 닫는 글

지금까지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과 기독교 상담에서의 활용을 살펴해보았다. 대상관계이론이 인간 이해의 핵심적 개념인 관계성임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신학과의 접점에서 기독교 상담에서 이 이론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두 사상이 말하는 관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상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 반대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 성경과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의 동기에 대하여(동기 이론), 마음 또는 정신의 결정에 대하여(결정 이론), 발달 또는 성숙에 대하여(발달 이론), 상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상담 이론) 다소 상이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유일하게 비슷한 관점은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치료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을 간과할 수 없기에

동기에 대한 고려와 영적인 관계라는 보완점을 제시했다. 따라서 관계라는 접점을 통해 대상관계이론을 기독교 상담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성경적 상담 현장에서 이 이론을 활용할 때에는 이 한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주의하여야 한다.

기독교 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의 활용을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정교한 평가와 고찰이 기준이 되어 선행되어야 하며(심정연, 2016), 이는 단순히 성경 대 심리학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에 더욱 충실한 상담을 위해서이다(김준, 2013).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을 배격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이해하는가에 핵심이 있다(김준, 2013). 따라서 우리는 대상관계이론의 잘못된 활용과 한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활용을 제시할 책임을 가지며(Lambert, 2012), 이를 위해 Powlison이 제시한 변증을 위한 순서인 Construct(구축), Confront(대면), Consider(고려)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구축'은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고찰하는 것이며, 그 고찰 위에 두 번째 작업인 심리학 모델과의 '대면'을 통하여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밝히고 성경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심리학 모델에서 배울 것이 있는지 '고려'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Lambert, 2012). 지금까지 이 논문을 통해 성경의 인간관과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구축과 대면이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제 이를 토대로 한 '고려' 작업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상관계이론 상담의 목적인 자아통합은 성경의 원리와 반대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담 문제의 분석의 틀로 단순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는 자아통합의 동기를 분명히 한 후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영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강조한 이론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상담자가 좋은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달해야하는 대상으로서 상담자는 마음을 다해 고민하는 능동적자세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자의 믿음이 요구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으신 삼중관계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 역기능적 삼중관계가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삼중적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 관계 가운데 인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대상관계 이론 및 모델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에 머물거나(이정혜, 2004) 막연히 기독교적인 이론으로 생각하여 상담에 적용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격적 관계'를 이 이론이 가진 좋은 자원으로 보고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영적으로 안전감이 있는 관계의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건설적이며 기독교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 상담자들이 단순히 관계라는 접점만 보고 상담 문제 분석의 틀로 이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그만두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영적 관계를 위한 관점에서 상담자의 사랑과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이론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 연구가 성경적 상담 현장에서 대상관계이론의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권수영 (2005). 기독교(목회)상담에서의 공감(Empathy): 성육신의 목회신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107-141.
- 김규보 (2014). 거짓자기, 참자기, 자기부인: 대상관계 이론을 통한 기독교 자기부인 고찰. *복음과 상담*, 22(2), 43-79.
- 김석호 (2012). 그리스도인의 삼중적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이에 따른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신앙과 학문*, 51, 33-66.
- 김승희, 황선미, 김용태 (2015). 성육신의 상담적 함의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5(3), 215-237.
- 김용기 (2013). Hoekema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비평적 고찰과 교육적 함의 연구. *성경과 신학*, 68, 27-54.
- 김 준 (2013). 기독교 상담과 성경: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 *개혁논총*, 27, 161-188.
- 김진숙 (2001). 대상관계이론이 상담적 적용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2(2), 327-343.
- 김진영 (2003).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 :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주체와 객체의 문제. *목회와 상담*, 4, 71-94.
- 문희경 (2007).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 서울: 도서출판 대서.
- 박한나, 가요한 (2017). 불안정한 초기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 투사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3), 61-83.
- 반신환 (1997). 신형상 (Divine Image)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종교연구*, 13, 213-228.
- 박민수 (2003). 하나님 형상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Rizzuto의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4, 35-69.
- 심정연 (2016).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과 적용 방안 연구- 하나님 이미지 변화 상담 모델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복음과 상담*, 24(2), 183-219.
- 오오현 (2010). 대상관계이론의 목회상담 적용에 관한 소고 - 대상관계이론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187-226.
- 유영권 (2008). *기독교(목회)상담학 :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 유장춘 (2012). 성육신 영성과 기독교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18, 7-38.

- 윤철호 (2013). 정신분석 이론과 종교이해에 대한 신학적 고찰 : Freud와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5, 223-260.
- 이수미, 유희주, 배시은, 김용태 (2015).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수용(Self-Acceptance)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조명.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3), 229-253.
- 이정혜 (2004). 대상관계이론의 국내경향분석과 가족복지적 함의. *한국가족복지학*, 9(1), 135-157.
- 이재훈 (2008).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우울증과 영성: Klein, 페어베언, 위니컷의 이론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10, 95-116.
- 이해리 (2004).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표상에의 접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4), 1293-1310.
- 조난숙, 안인숙 (2017). Fairbairn과 Kohut 이론의 비교와 기독교상담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2), 147-177.
- 조난숙, 장동진 (2018). 자기에 성향 내담자에 대한 대상관계적 접근 - 기독교 상담의 영성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3), 251-290.
- Greenberg, J., & Mitchell, S.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이재훈 역,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83년 출판).
- James J. (2004). 전환기의 종교와 심리학(이재훈 역, *Religion and psychology in transition: psychoanalysis, feminism, and theolog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83년 출판).
- Lambert. H.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김준 역,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12 출판).
- Clair. M. (1998).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이재훈 역,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4 출판).
- Hamilton. N. G. (2008). 심리치료에서 대상관계와 자아기능(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 *The self and the ego in psycho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전 1994 출판).
- Tripp. P. D. (2007).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황규명 역,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원전 2002 출판).
- Cashdan. S. (2005). 대상관계계치료(이영희, 고향자, 김해란, 김수형 역,

- Object Relations Therapy : Using The Relationship*). 서울: 학지사. (원전 1998년 출판).
- Fairbairn, W. R. D. (2003).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이재훈 역,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5년 출판).
- Hoekema, A. (1990). 개혁주의 인간론(류호준 역,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86년 출판).
- Scharff, J. S., & Scharff, D. E. (2008). 대상관계 심리치료 -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오규훈, 이재훈 역, *The Primer of Object Relations Therap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5 출판).

【 Abstract 】

A Study on Application of Object-Relation Theory in
Christian Counseling:
Based on fairbairn's object-relation theory and hoekema's
created in God's image

Park, Anna

Seochog-yu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oper use of the Object-Relations Theory for Christian counseling.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reexamined Fairbairn's Object-Relation theory in the biblical perspective.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Fairbairn's theory and 'Created in God's image', a book on biblical humanity written by Hoekema, Reformed theologian,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s in many aspects. The theory explains that human being desire the relationship and consider mom as a crucial object to divide the self. Therefore the goal of the counseling is to integrate the self. The theory emphasizes therapeutic relationships. However, the Bible regards the mind as the decision maker to satisfy oneself and the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is the unit of measure of maturity. The purpose of biblical counseling is the self-denial. In conclusion, there is a serious and critical limitation in using this theory in Christian counseling as a framework of problem analysis because both the theory and the Bible are in opposition to the goal of counseling, despite the commonality of human beings as a relationship-centered ent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Christian counselors should identify the motive for self-integration and use the theory to strengthen therapeutic-relationships with incarnate attitudes.

Key words: object-relations theory, Fairbairn, Hoekema, Christian counseling, Biblical counseling